

다산포럼

우주 속 터럭 하나, 생명공동체로 살아가기



유지나 동국대 교수

십 년째 연말연시 연휴를 바다 건너에서 보낸다.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 밤에 지난 해 마지막 날,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라가 천체 스펙트럼을 보며 우주적 감성에 접속하는 경이로움에 젖어 들었다.

빅뱅 이후 우주 속 먼지처럼 탄생한 지구를 따라잡는 이미지들, 그 밑에 장식된 해·달·별들을 모티브 삼아 만든 온갖 장신구들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태고적부터 천체를 바라보며 운명을 점치며 별자리 신화를 만들어낸 인류가 이제 우주선을 만들고, SF 영화들을 생산해내는 현실이 저릿하게 다가왔다. 지구라는 행성을 우주의 먼지라고 표현한 구절을 마주하며 나 역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깨우침이 작동했다.

UN이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하고 여러 나라와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인류 복지와 관련된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소식도 우주적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인티스텔라'에서 멸망할 지구를 떠나 생존자를 탐험하러 가는 주인공 쿠파가 울었던 달턴 토마스의 시도 떠오른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요 /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그 사라져 가는 빛을 찾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내는 별들 사이로 인류가 살아갈 곳을 찾아가는 영화는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놀란 감독이 북미지역보다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더 큰 호응을 얻는데 놀라 감사인사를 전했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블랙홀과 웜홀, 상대성 이론 등이 등장하는 인류 구원담으로서의 SF블록버스터에 열광하는 것, 그것은 현실의 답답함, 억울함을 벗어나고픈 억압의 표출이었을까?

궁금하던 그 이유가 천문대 산책을 하노라니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동근 천정이 스크린이 되어 별자리에 얽힌 신화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우주 과학 이미지를 펼쳐 보이는 극장에 반 정도 누운 자

세로 하늘을 본다. 한순간, 느닷없이 운동주의 '서시'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간단하고 매혹적이어서 절로 외워지는 시어사일까? 별들을 바라보노라면 이 시가 들려오곤 한다.

일본 교토에 갔을 때, 도시사대학에 그의 친필이 새겨진 시비를 보면서도 궁금했다. 독립운동으로 옥사한 그가 아프디 아픈 삶 속에서 별을 노래하는 우주적 감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블랙홀 같은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물음은 '인티스텔라'의 쿠파가 블랙홀에 빠져드는 이미지와 오버랩된다. 하늘과 강물에 흐르는 별빛을 잡아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미지도 겹쳐진다. 그 그림에 매혹돼 돈 맥클린어 부른 팝송 '빈센트'도 마음 속에서 울려온다.

2004년 미항공우주국(NASA)이 고흐의 별밤 그림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며 공개한 천체 사진도 떠오른다. 허블망원경의 고성능카메라가 찍은 별들의 사진에는

소용돌이치는 우주먼지도 보인다. 그 광활한 구석에서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드러난다. 이 점을 보고 칼 세이건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지구적 삶을 노래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사랑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람에게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고 죄인들이 여기 태양 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런 우주적 감성 여파인지 장일순 선생님의 이야기 모음집 '나락 한알 속의 우주'를 다시 집어 든다. 십여 년 전 읽으며 그저 넘겼던 대목들이 천체를 감렬하게 접하고 나니 새삼스레 다가온다. 터럭 하나 속에도 생명의 진수가 담겨있다는 대목이 더욱 그렇다.

오늘 먹을 곡식 한 알에도 우주가 담겨있다는 깨우침, 그 힘으로 아픈 세상 풍파 속 작은 터럭 같은 소우주로 대우주를 호흡하는 한 해를 기원한다.

기고



김치균 남부대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주간 전조등을 왜 켜야 하나

이러한 변화들은 개개인이 직접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주는 편리성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법적, 제도적 변화에 보다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운전생활과 원활하게 연동될 때 비로소 효과와 혜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달라지는 것들 중, '주간전조등 장착 의무화'에 운전자들이 좀더 관심 가졌으면 한다. '전조등'은 다들 알다시피 운전 시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켜지는 등화장치 켜는 만큼 법적, 몇몇 수입차나 장식 효과를 위해 장착한 국산차가 있던 하지만, 아직 대다수 국산차량들은 주간전조등이 없다. 그래서 '전조등'이라고 하면 흔히 '야간전조등'을 떠올리고, 운전자들 역시 전조등은 야간에만 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출고되는 차량은 별도의 '주간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운전자도 차에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주간전조등이 함께 켜지게 만들어진다.

이는 몇 년 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해 펼쳐진 '전조등 켜기 생활화' 캠페인이 별 효과없이 유아무야만 일을 환기시킨다. 밝은 낮에도 전조등을 켜으로써,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차량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집중력 향상으로 졸음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해도 실제 운전에서는 별로 실천되지 못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야간전조등을 주간에 켜게 되면 연료 및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고, 전구수명이 단축된다거나, 초보운전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한다. 광주와 대구를 이어주는 88올림픽 고속도로는 대우고속 발생시 치사율이 높기로 악명 높은 도로이다. 올해 4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면 이런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 2002년부터 주간전조등 켜기를 시범운영한 결과, 중앙선 침범 사고건수 18%, 사망자수

19%, 부상자수 18% 감소효과를 보였다. 유럽은 기차 교통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의 교통 분담률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주간전조등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1972년 핀란드, 1977년 스웨덴, 1985년 노르웨이, 1986년 캐나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주간전조등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 11%에서 최대 44%까지 교통사고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선일경과 달리 주간전조등을 켜고 시속 60km로 50km를 운행할 경우 연료비 증가분은 2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부담이다. 또한, 요즘 나오는 주간전조등은 백색 LED로 되어 있어 상대방 눈을 부시게 해 운전자를 방해할 수 있다는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어운전'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운전법이고, 주간전조등 켜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어운전의 좋은 방법이다.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주간전조등 장착 의무화가 운전자들이 '전조등 켜기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기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혜택 충분히 활용하자



김정연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장

사업의 영세성, 실업, 경제적 불황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2015년 1월부터는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초 시행시에는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3분의 1을 차등지원 해왔으나, 2013년 4월부터 월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소득상한액 기준이 상향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 5만명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방법은 해당 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다음달

10일) 완납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지원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주가 하면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또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보험료의 4분의 1만 납부하더라도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되어 시행된다. 지원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2015년 1월부터 91만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함으로써 약 18만여명이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매출 지원되는 최대 지원금액도 월 3만8250원에서 월4만9500원으로 상향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및 수급액 상향을 용이하게 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간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국

민연금가입자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게 되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되며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월 보험료가 계산되고 최대 1년동안 보험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가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불황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해 노후보장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매우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힘들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어렵게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농어업인, 그리고 실직으로 낙심해 있는 분들에 이러한 보험료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앞찬 노후를 준비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社說

국민의 기대 저버린 박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선 문건 파동과 관련,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분야 개혁 등 3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하는데 전제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청와대 인사개편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실망감을 키웠다. 현안이 수습될 때까지 기존 비서실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으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3명의 비서관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정도의 미온적인 대처로 청와

대과 과연 국정 사령탑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내각과 청와대 편향 인사와 관련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겠다"며 언급 수준에 그쳐 호남 인사의 홀대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수도권에 "공정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취임 초 국정과제로 제시한 인사대타령과 국민대통령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국민이 듣고 싶은 핵심을 비껴갔다. 문건 파동과 내정수사 항명 이후 제기된 청와대와 내각 개편 여론을 수렴해 국정 쇄신 의지를 분명히 해주길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다시금 강조하건 데 박 대통령은 국정개혁과 경제활력 회복이 국민적 지지와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 '사각지대' 원룸 서둘러 점검해야

지난해 벌어진 끔찍한 대형 사고들에 대한 기억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또다시 새해 벽두부터 의정부 원룸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광주지역 원룸들도 기초적인 소방점검도 하지 않고 소방시설도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1010건의 화재 가운데 100건이 원룸과 같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4층 이하 원룸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기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 탓에 지난해 광주시가 2만6000여 곳을 점검했지만 원룸은 단 한 곳도 하지 않았다.

상당수 원룸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광주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세대별·층별 소화기 등을 의무 설치토록 했으나 '소구에 경 엄기'라고 한다. 건물주들이 규정 자체를 모르고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비용문제를 설치에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보듯 원룸은 화재에 취약하다. 이번 화재도 허술한 외벽공법과 건물 간 좁은 간격 등이 화를 키웠다. 광주의 원룸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다.

좁은 부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건물 사이가 50cm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불이 나면 옆 건물로 쉽게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입주자들은 많은데 비상구는 통로 계단 뿐이고 방범창까지 설치되어 있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시가 원룸 건축허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200여 건에 이르는 등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기회에 원룸 점검에 나서 건물주들의 안전불감증을 엄히 경고하고 자발적인 시설물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소방시설 미설치 처벌규정을 만들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는 신속히 뜯어고쳐야 한다.

無 等 鼓

수·금·지·화·목·토·천·해·명.

명왕성(Pluto·冥王星)은 태양계 9개 행성 중 맨 마지막 행성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IAU)은 일반인들의 천문 상식을 깨뜨리는 결정을 내렸다. 명왕성이 '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왜소행성'(Dwarf Planet)으로 분류하고 '134340플루토'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당시 연맹은 행성의 조건으로 충분히 커야 하고, 자신의 중력으로 구형을 유지해야 하고, 독립된 궤도로 태양주위를 돌아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명왕성은 달의 (로마신화 플루토)의 이름을 딴 명왕성에 근접해 미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30년 2월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1906~1997)는 미국 MLB 페넬 역자 '코스모스'에서 명왕성에 대해 이렇게 짧막하게 묘사한다.

"명왕성은 메탄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단 한 개의 커다란 위성 카론을 데리고 있다. 이 행성은 멀리 떨어진 태양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므로 칠척의 공창 속에 있는 조그만 광점(光點)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현재 명왕성의 위성은 카론을 비롯해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등 5개로 늘었다. 또 고체 메탄으로 구성돼 있고 영하 230도로 표면 온도가 낮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지식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워낙 크기가 작아 관측하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발사된 미국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휴면 상태에 서 깨어나 15일부터 6개월 간 본격적인 탐사 준비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앞으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신 하데스(로마신화 플루토)의 이름을 딴 명왕성에 근접해 미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30년 2월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1906~1997)는 미국 MLB 페넬 역자 '코스모스'에서 명왕성에 대해 이렇게 짧막하게 묘사한다.

"명왕성은 메탄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단 한 개의 커다란 위성 카론을 데리고 있다. 이 행성은 멀리 떨어진 태양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므로 칠척의 공창 속에 있는 조그만 광점(光點)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국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장 외 부 222-4918 | 체 육 부 2200-697 |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프 로 그 램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